



정치외교 통역사의 중재 역할에 관한 고찰

A Study on Interpreter's Role as Mediator in Political and Diplomatic Settings

저자 (Authors)	김영주 Kim, Youngjoo
출처 (Source)	번역학연구 22(4) , 2021.10, 67-90 (24 pages) The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22(4) , 2021.10, 67-90 (24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번역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Translation Studie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620496
APA Style	김영주 (2021). 정치외교 통역사의 중재 역할에 관한 고찰. 번역학연구, 22(4), 67-90.
이용정보 (Accessed)	고려대학교 163.***.133.25 2022/02/21 13:47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정치외교 통역사의 중재 역할에 관한 고찰

김 영 주

(덕성여대)

1. 서론

흔히 통역사는 연사의 입이 된다고 한다. 여기에는 연사가 발언한 내용을 통역사가 임의대로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통역사는 단순히 연사의 말을 도착어로 옮기는 ‘치환(transition)’에 그치는 대신,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중재(mediation)¹⁾’를 통해 의사소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역할을 한다. 동시통역의 경우 통역사가 연사와 물리적으로 떨어진 부스에서 주로 통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순차통역에 비해서는 중재 행위의 범위가 제한된다고 할 수 있다. 순차통역은 통역사가 대화 참여자들과 같은 공간에서 그들의 언어 및 비언어적 요소를 가까이에서 관찰하

1) 하티프와 메이슨(Hatim and Mason 1997: 147)은 중재를 ‘통번역사가 텍스트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식과 신념을 투영하여 두 언어 간 치환 과정에 개입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중재의 개념은 본고 2.2에서 다시 논하기로 한다.

고 이를 반영하여 통역하게 된다. 통역이라는 업무의 특성상 모든 분야에서 통역사의 중재 행위가 관찰되지만, 특히 정치외교 분야에서 통역사의 중재자 역할은 더욱 강조된다. 정치외교 분야의 통역이란 양자 혹은 다자회담 회견 협상에서의 연설을 통역하는 것으로 주로 정상회담, 정부고위층인사의 실무회담, 국제회의 등 외교적으로 행해지는 각종 연설을 대상으로 한다(황지연 2003: 439)²⁾.

카드릭 외(Kadrić et al. 2021: 132-133)는 정치외교 통역에서 중재 역할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한 공식만찬에서 중국의 남성 기업인이 건배 제의를 하면서 여성 유럽 귀빈에게 ‘원샷(bottom up)’³⁾이라고 외친 일화를 소개한다. 통역사가 즉각 해당 귀빈에게 중국 문화에서 환대의 표현일뿐 다른 의미는 전혀 없다는 설명을 하고, 건배 제의를 한 기업인에게도 귀빈의 국가에서는 그러한 문화가 없다는 점을 설명함으로써 어색한 분위기를 모면한 일화이다. 이는 어느 외교관의 비유처럼(Kadrić et al. 2021: 132) 정치외교 통역사가 ‘거친 모서리를 다듬는 작업(sand off rough edges)’을 함으로써 그대로 옮겼다면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이나 오해의 소지를 예방한 전략이라 하겠다.

번역학에서도 여러 학자들이 통번역사가 단순히 두 언어 간 치환이 아닌 문화 간 중재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강조해왔다. 베데커와 페이나워(Bedeker and Feinauer 2006: 133)는 번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두 언어 간 단어와 문장을 치환하는 사람에서 문화 중재자 및 문화 간 의사소통적 기능으로 전환했다고 지적한다. 특히 부스에서 이루어지는 동시통역이 아닌 순차통역의 경우 화자 사이에서 면대면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므로 통역사의 대화 촉진자 혹은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조된다⁴⁾. 국가 수반이나 고위급 인사를 참여자

2) 한편, 샤프너(Schäffner 1997: 119)는 정치 텍스트를 다양한 텍스트 타입과 장르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보며, 양자 혹은 다자조약, 선거유세 연설, 정당회의 연설, 의회 토론, 신문 기고문, 정치인 대상 기자회견 등을 정치 담화의 예로 들고 있다.

3) 실제 해당 기업인은 중국어로 ‘把這杯干了(직역하면 ‘잔을 비웁시다)’라고 발언했으나 본고의 저자가 한국 문화에서 익숙한 ‘원샷’이라는 표현으로 바꾼 것이다.

4) 같은 맥락에서 고영민(2005: 3)도 “‘대화통역(dialogue interpreting)’에서의 통역사의 역할은 텍스트에 대한 ‘번역사’로서만 기능하는 투명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대화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커뮤니케이션을 돕고, 대화를 촉진시키고, 상황을 중재하고 발연순서를 지정하는 등 화자의 메시지 전달이라는 통역사 본연의 역할을 초월하여 대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고 하였다.

로 하는 정치외교 상황인 경우 통역사의 중재 역할은 중요성을 더한다. 대화 참여자들 간의 이해관계나 견해가 충돌되는 경우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책임이 오롯이 통역사에게 전가될 수 있고, 통역사가 단순히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것을 넘어, 정치적 사안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이해를 도모하는 역할까지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Liao and Pan 2018: 189)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학 내에서 통역사의 중재 역할은 정치외교보다는 커뮤니티 통역에 집중되어 왔다(Liao and Pan 2018: 189). 국내에서도 통역사의 역할에 관한 논의는 관광통역, 법정통역 등의 커뮤니티 통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김지은 2015; 이승재 2010; 이유진 2016). 통역 연구는 아니나 이데올로기적 요소를 포함한 뉴스를 번역할 때 번역사가 수행하는 중재 역할을 고찰한 연구도 있다(Kim 2003). 대통령 연설문의 기계번역과 인간번역 간의 차이점을 연구한 김영주(2020: 11)는 인간번역이 기계번역과 비교하여 질적인 차이를 만드는 요인으로 배경 지식이나 맥락정보를 활용해 의미를 중재한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다른 통역 상황과 마찬가지로 정치외교 연설문에서도 통역사의 중재가 개입됨을 시사하였다.

이처럼 정치외교 통역사의 역할은 비교적 단편적으로 다루어졌다. 정치외교 통역이 국가의 정치 경제적 이미지나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황지연 2003: 440)함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서 중재자로서의 통역사의 역할을 조명한 연구는 미미하다. 정치외교 통역사의 중재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정치외교 통역과 연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나, 특히 스페인어의 경우 박소영(2015: 56)이 지적한 바와 같이⁶⁾ 관련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정치외교 통역사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사소통 상황의 참여자로서 중재 역할을 수행하는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치외교 통역의 특징을 분석하여 이 분야의 통역

5) 랴오와 판은 기자회견의 예를 들어 정치외교 세팅과 다른 세팅과의 차별점을 설명한 것이다.

6) 박소영은 스페인어 연설문의 논의를 다룬 연구로 한원덕(2002)과 김영주(2013)가 전 부라고 지적하였으나 이후 김영주(2020)가 대통령 연설문을 기계 번역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사에게 요구되는 자질에 대해 논하고 실제 통역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중재 양상과 그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치외교 분야에서 전문 통역사의 활동이 활발한 만큼 정치외교 통역사의 중재 양상을 고찰하는 것은 교육 및 통역 현장에서 통역사의 역할에 대해 재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이론적 배경

2.1 정치외교 통역

정치외교 통역은 연사의 담화, 즉 텍스트 차원과 담화가 이루어지는 상황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번역학에서 정치외교 텍스트를 하나의 개별 장르로서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정치외교 텍스트의 특징을 기술한 연구로 김영주(2020: 14)는 정치외교 텍스트의 하나인 대통령 연설문을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과 ‘높은 수준의 정치적 담화’로 규정하며 번역 시 격식 있는 언어를 사용하고 발언의 의도를 왜곡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송연석(2019: 119)도 대통령 연설에 대해 권위의 상징인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격식성이 높으며 통역사 또한 대통령의 ‘격’에 맞는 언어를 구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담화 상황의 측면에서 보면 정치외교 통역은 다른 세팅의 통역과 차별점이 있다. 부리(2015)는 절제된 표현(understatement)을 외교적 화술의 특징으로 지적하며 그러한 표현을 통역하기 위해서는 통역사가 숨은 문화적 측면(cultural aspects involved)까지 고려하여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정치외교 세팅에서 통역사의 역할이 담화의 표면적 의미만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행간의 의미를 찾아 적극적인 의사소통 매개를 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역할은 다른 세팅에서도 통역사에게 요구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정치외교의 경우 당사자들 간에 오해나 충돌이 발생할 때 통역사에게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거나 부리의 표현을 빌리자면 통역사가 ‘희생양(scapegoat)’이 되기도 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주로 정치외교 담화가 대통령, 총리, 외무장관 등 고위공직자에 의해 이

루어지며, 그로 인해 통역의 내용이 가지는 파급력 또한 다른 통역과는 다르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한 두 국가의 정상이 만난 자리에서는 자칫 정상의 격을 떨어뜨리거나 분위기를 경직시킬 수 있는 표현이 원발화에 있더라도 통역사가 이를 중재하여 행사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정치외교 통역은 단순히 내용의 정확한 전달을 넘어서 외교적·의전적인 측면도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통역한 내용이 실시간으로 보도되는 일도 비밀비재하므로 통역사가 중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외교 스캔들로 비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민감한 이슈나 상황을 매끄럽게 정리하는 일 이외에도 정치적 담화의 통역사는 연사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형성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Liao and Pan 2018: 200). 통역사의 이러한 역할은 외교적 만남이 궁극적으로는 당사국들 간의 관계 개선 및 우호 증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부리는 외교 세팅에서 위스퍼링 통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목소리와 적절한 음조(modulation)를 외교통역 시 고려사항으로 지목한다. 또한 정치외교 분야의 통역사는 연사보다 말을 지나치게 크게 혹은 빨리 해서도 안되고, 고위 인사들만의 사진이 필요한 순간에는 자리를 피해주는 등의 의전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차예지 2007). 옷차림 또한 정치외교 통역 시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VIP의 옷차림과 유사하게 입되 너무 과하게(too formal) 혹은 너무 모자라게(too informal) 입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행동거지에 있어서도 튀지 않고 신중함을 유지하여 VIP의 격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카드릭 외(2021: 143)는 정치외교 분야를 통역할 때는 주제 지식과 언어적 기술 이외에도 통역사의 의사소통적 역량이 중시된다고 하며 통역사에게 요구되는 자질로 어느 규모의 청중 앞이라도 두려움 없이 말하기,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기, 압박이 심한 상황이라도 평정심을 유지하기, 유명인사를 만나도 수줍어하지 않기 등을 언급한다. 카드릭 외는 실제 정치외교 통역사들의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위에서 언급한 자질 중 긴장을 극복하는 능력을 강조한다. 정치외교 통역의 경우 대화가 아닌 일방으로 이루어지는 연설을 할 때 연사가 사전에 준비한 원고를 읽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통역사는 해당 연설문을 미리 입수하여 통역할 언어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연사가 준비한 원고를 읽지 않고 즉석에

서 연설하는 때가 종종 있다. 또는 원고의 순서를 바꾸거나 새로운 내용을 첨가하기도 한다. 이는 통역사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긴장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은 정치외교 통역사에게 매우 중요한 자질이라 하겠다. 양국 정상이 배석한 기자회견에서 사전에 합의된 주제 이외의 질문이 제기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기자의 질문에 대한 한 측의 답변이 다른 측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라면 긴장도는 더욱 높아진다. 대화 참여자 간의 이해관계가 얽힌 다양한 주제에 대해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능통해야 한다는 것 이외에도 예상하지 못한 변수의 등장과 이에 따른 심적인 부담을 해소하는 과제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정치외교 통역은 다른 상황의 통역과 구분된다.

특히 여러 연구에서 지적하듯이(이혜승 2006; Buri 2015; Kadrić et al. 2021) 정치외교 담화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군사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어 이를 통역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 또는 주제별 전문용어를 숙지하고 폭넓은 배경 지식을 갖추는 등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주제 지식이야말로 정치외교 통역사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는 데에는 연구자와 통역 실무자가 동의하는 부분이다(Kadrić et al. 2021: 144).

2.2 중재자로서의 통역사

하팀과 메이슨(1990: 223)은 번역사가 ST 생산자와 TT 사용자 간의 중재자(mediator)로서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중심에 있다고 함으로서 번역사의 중재 역할을 명확히 한다. 이들은 번역사의 중재 역할을 두 가지 측면에서 논한다. 하나는 SL에서 제시된 정보가 TL에서 중요하지 않을 경우, 혹은 그 반대의 경우 번역사가 효과적인 의미 전달을 위해 그러한 상황을 중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ST에서 뒤에 이어질 내용을 먼저 읽을 ‘특권을 가진 독자(privileged reader)’로서 번역사의 중재 역할이다. 하팀과 메이슨은 후자의 경우 순차 통역사가 번역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1990: 223-224).

통번역사의 중재 역할을 논할 때 많은 연구에서 ‘문화 중재자(cultural mediator)’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때 ‘문화’란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용어라 하겠다(Ménacère 1999: 346, Bedeker and Feinauer 2006: 134에서

재인용). 이와 관련하여 샤프너는 정치적 상황에서 행해지는 연설에서 문화가 ‘국가’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고 강조한다(1997: 128).

통번역사의 중재는 정보량을 조절하는 것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하티프와 메이슨은 이를 ‘공유된 가정(shared assumption)’과 ‘가정된 친근성(assumed familiarity)’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1990: 217). 발화자가 청자의 지식 수준을 가늠하여 청자가 최소한의 노력으로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담화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영국 정상, 장관, 외교관 등이 참여하는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는 모든 참여자가 유사한 지위를 누리며 공유지식(shared knowledge) 또한 유사하다. 대화 참여자 간의 공유지식은 성공적인 협상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기본 요건으로서 통역사도 공유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이때 공유지식은 국제 정세, 지정학적 요인, 파트너십, 분쟁, 여러 국가의 국내정세, 현 회담의 주제, 외교 의전 등을 망라한다(Kadrić et al. 2021: 28).

샤프너(1997: 129)는 정치인의 발언을 번역할 때 SL 청중과 TL 청중 간의 상호 지식(mutual knowledge)의 차이를 언급하며 SL 문화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TL 청중을 위해 번역사가 중재자로서 부족한 배경 지식을 채울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강조한다. 샤프너는 번역사가 ST에서 내재적으로 나타난 정보를 중재하지 않고 TT에서도 내재적으로 남겨두면 원문이 잘못 이해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하티프와 메이슨과 샤프너는 번역의 경우를 예로 들었지만, 이는 통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실제로 카드리크 외(2021: 145)가 정치외교 분야 경험이 있는 통역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에서 한 통역사는 정치외교 상황의 경우 국가 정상이라 할 지라도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으므로 연사가 배경 지식이 부족하거나 그렇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된 메시지를 강조하거나 배경 지식을 첨가하여 통역한 경험이 있다고 회고한다. 카드리크 외(2021: 145)는 평소 통역사는 문화, 경제, 스포츠, 국내외 정세와 관련된 현안에 대하여 지식을 축적해야 하며 해외 주요 인사 방문, 국가 간 협상 등 구체적인 주제가 주어졌을 경우 그러한 지식과 연계하여 전문지식을 함양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황지연(2003: 440)도 정치외교 영역에서 국가 간 문화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므로 통역사가 참석자로 하여금 양국 간 문화적 차이를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재를 이데올로기와는 무관하게

최대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통역사가 원문에 가하는 모든 종류의 변형으로 보고 수집된 사례를 분석하기로 한다. 정치외교 통역의 경우 통역사의 중재는 주로 갈등상황을 중재하거나, 연사의 격을 유지하고 대외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높이며, 우호 증진이라는 외교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정치외교 분야에서 통역사가 커뮤니케이션을 중재하는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 실제 통역 사례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행사 홍보 혹은 정보공유 차원에서 통역사와의 사전 합의 하에 녹음 또는 녹화 후 외부에 공개하는 동시통역과 달리 순차통역은 특별한 경우(7)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자료를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고위급 인사가 참석한 정치외교 행사의 경우 기밀성(confidentiality)을 이유로 녹음 또는 녹화가 이루어지더라도 외부에 공개되는 일이 드물다. 다행히 근래에는 각국 정부에서 유튜브, SNS 등의 플랫폼을 활용한 국정홍보 활동을 중시하고 있어 통역내용이 포함된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자국 대통령의 발언 혹은 주요 발언 중심으로 편집하는 경향이 있는 관계로, 본고의 분석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자막이 아닌 통역사의 음성까지 포함된 행사 풀버전 영상을 찾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 또 국정홍보를 위한 플랫폼의 활용도 역시 국가마다 상이해 스페인어권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홍보활동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콜롬비아가 데이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⁸⁾. 최대한 다양한 국가와 포맷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정상회담은 모두발언을 제외하고는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주로 공동언론발표나 기자회견 등 외부에 공개되는 공식 석상에서 이루어진 연설 및 발언을 중심으

7) 정상회담, 국빈 초청 오·만찬 환담, 혹은 일부 외교협상의 경우 내부 소장용으로 녹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8) 그러나 연사들은 한국과 콜롬비아 모두 지난 정부와 현 정부 인사들로 이루어져 한 쪽에 편중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로 데이터가 수집되었음을 밝혀둔다.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통역 방식과 무관하게 통역은 기본적으로 중재 과정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통역은 연사의 말을 시차 없이 옮겨야 하는 행위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통역사에 의한 중재가 제한된다고 판단하여 순차통역만 분석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수집한 영상에는 외국측이 현지에서 고용한 통역사의 통역 영상도 있었으나, 이들이 정식 통역교육을 받은 전문 통역사가 아닌 데다 실제 통역한 내용도 오류가 많아 평가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분석에는 제외하였다. 분석한 텍스트의 통역사는 정부기관 소속 통역사 2인으로 국내 통번역대학원에서 전문 교육을 받은 인력이며 언어나 통역기술 면에서 흠결이 없는 통역 실력을 갖추고 있다. <표 1>은 분석 텍스트이다.

〈표 1〉 분석대상 텍스트

구분	일시	영상길이 ⁹⁾	출처
T1: 김성환 외교장관 페루 방문 계기 기자회견	2012.5.24.	7분 10초	페루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T2: 이명박 대통령 콜롬비아 방문 계기 공식오찬	2012.6.25.	35분 06초	콜롬비아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T3: 이명박 대통령 콜롬비아 방문 계기 공동언론발표	2012.6.25.	50분 35초	콜롬비아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T4: 박근혜 대통령 콜롬비아 방문 계기 공동언론발표	2015.4.17.	30분 01초	콜롬비아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T5: 이낙연 국무총리 콜롬비아 방문 계기 공동언론발표	2019.5.6	32분 43초	콜롬비아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T1, T4, T5는 한 명의 통역사가 AB, BA 양 모드를 통역했다. T2와 T3은 같은 날에 이루어진 행사로 콜롬비아 측에서 고용한 통역사가 BA 통역을 맡았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해당 통역사가 전문 통역사가 아닌 관계로 T2와 T3의 BA 통역 내용은 분석에서 제외하고, 한국 측 전문 통역사가 행한 AB 통역만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 분석한 데이터는 AB와 BA가 혼재되어 있으며 언어 방향은 통역사의 중재 역할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고려하지 않았음을 밝

9) 영상의 전체 길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 멘트, 언론발표 전 협정체결 및 훈장수여식, 행사 준비에 따른 오디오 공백 등이 포함된 시간이다.

혀둔다¹⁰⁾.

자료를 확보한 후에는 영상을 재생하며 한국어 또는 스페인어 발연(ST)과 그에 해당하는 통역 내용(TT)을 워드 파일에 전사하였다. 연사와 통역사의 필러(filler)는 중재 양상과는 연관성이 적어 전사하지 않았다. 이후 전사한 ST와 TT를 비교 대조하며 ST에 없는 요소가 첨가되거나 반대로 ST의 성분이 TT에서 삭제된 예시를 중심으로 통역사가 개입한 사례를 재수집하였다. 최종적으로 통역사의 중재 과정이 반영된 예시로 분류한 사례는 총 58건이었으며 이는 중재 유형에 따라 크게 명시화, 내용보강, 격식성 높이기, 중립성 유지, 윤문으로 나눌 수 있었다. 유형별 분석 결과는 다음 장에서 상술하도록 한다.

4. 분석 결과 및 논의

앞서 2장에서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참여자들이 공유한 지식의 수준이 비슷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 통역사는 공유지식의 수준을 조절하는 중재 역할을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특히 정치외교 분야의 경우 제시되는 주제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의 지위와 담화가 가지는 중요도 및 상징성을 고려할 때 통역사가 자신의 배경 지식을 활용해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고 연사의 격을 해치지 않는 통역을 해야 한다. 미치 연사가 고려하지 못한 사실관계나 명칭 등을 통역사가 그대로 통역하면 연사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 낮아질 수도 있으므로 사전 정보를 적절히 가감하여 연사가 의도한 바를 정확히 짚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

본고에서 분석한 실제 사례에서도 통역사의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한 중재 행위가 관찰되었다. 그 결과 연사의 발언에는 없었으나 통역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보를 첨가함으로써 발연 내용을 보강하거나 지시 대상을 더욱 명확히 해 커뮤니케이션 효과가 배가되었다.

10) 이는 본 연구에서 분석한 데이터의 규모 때문이다. 현재 입수한 데이터에서는 통역 모드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데이터 규모가 커지고 다른 통역사의 통역 내용을 분석할 경우 분석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추후 연구에서 보강되어야 할 부분이다.

4.1 내용보강

분석 결과 내용보강과 명시화가 전체 58건 중 29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 (50%)을 차지하였다. 내용보강은 배경 지식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명시화와 유사해 보이나, 주로 고유명사인 지시 대상을 정확한 용어나 표현으로 통역하는 것에서 나아가 원발화가 암시한 바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메시지를 더욱 명료하고 정확하게 만드는 전략이다.

예시 1) T4

ST: Le agradezco muchísimo las condolencias que nos ha ofrecido por **los hechos recientes en ese frente.**

(BT: 이러한 차원에서 **최근의 사건**에 대해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애도의 뜻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TT: **이를 전 콜롬비아에서는 반군의 공격으로 인해 군인들이 사망을 했는데**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께서 애도를 표해주셨습니다.

예시 1은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남미 순방의 첫 대상지인 콜롬비아 방문 계기 한-콜롬비아 공동언론발표에서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전 대통령이 행한 연설의 일부이다. 당시 콜롬비아 정권은 오랜 내전을 종식하기 위해 무장혁명군(FARC)을 비롯한 반군단체와의 평화협상에 주력하였는데, 마침 박 전 대통령의 방문 며칠 전에 콜롬비아 군인 대상 반군세력의 총격이 있었다. 예시 1의 ST는 콜롬비아 정부의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지에 감사를 전하는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다. 산토스 대통령은 구체적인 언급 대신 ‘최근의 사건’이라는 함축적인 표현에 그쳤다. 물론 해당 사건이 예시 1의 발언 전에 양국 정상 간 대화에서 다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할 지라도 예시 1의 통역사는 구체적으로 풀어 설명함으로써 청중, 특히 한국 대통령이 해당 사건을 유추하는 수고를 덜어 콜롬비아 대통령의 이어진 발언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었다. 예시 2도 같은 행사에서 수집한 콜롬비아 대통령의 발언이다.

예시 2) T4

ST: **tenemos un tratado de libre comercio** que en caso colombiano solo

falta el paso por la corte constitucional.

(BT: 양국에게는 FTA가 있습니다. 콜롬비아의 경우 헌법재판소 내 절차만이 남았습니다.)

TT: 한 콜롬비아 FTA도 이미 서명이 되어 있고, 콜롬비아 측 헌법재판소의 검토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예시 2에서 연사는 양국 간에 FTA가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동사 ‘tener(가치다)’를 써서 다소 밋밋하게 나타내었다. 통역사는 이를 ‘서명이 되어 있다’고 처리하였는데, 통역사의 중재를 통해 실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콜롬비아 방문의 성과라 할 수 있는 ‘한-콜롬비아 FTA 서명’이 더욱 부각됐다고 할 수 있다.

예시 3) T5

ST: Tuve la ocasión, cuando visité los EEUU de Norteamérica hace unos meses, de ir a un monumento de la Guerra de Corea,

(BT: 제가 몇 달 전 미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전 기념비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TT: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을 방문했는데요, 당시 미국방문을 했을 때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을 방문을 해서 헌화식을 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예시 3도 통역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배경지식이 활용된 사례이다. ST를 그대로 직역하여 ‘한국전 기념비에 갔다’고 통역해도 큰 무리는 없는 경우이나, 통역사는 콜롬비아의 한국전 참전이 양국 관계에서 항상 언급되는 중요한 연결고리라는 점을 의식하여 내용을 보강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콜롬비아 대통령이 단순히 기념비를 방문했다고 전달하는 대신 기념비가 위치한 정확한 장소와 헌화까지 했다는 정보를 첨가함으로써 한국에 우호의 뜻을 표하고자 한 원발화자의 내포된 의도가 더욱 효과적으로 드러난 예라 하겠다.

4.2 명시화

내용보강과 더불어 통역사의 중재가 가장 많이 관찰된 전략은 명시화였다. 여기서 명시화란 원문에서 불명확한 용어나 상위어를 사용해 제시된 대상을 정

확한 지시대상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예시 4) T1

ST: 우선 금년 7월 1일에 이곳에서 **한국과 페루의 농업기술협력센터**가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TT: Ante todo está prevista la inauguración del **Centro de Cooperación Internacional de Agricultura de Corea, KOPIA**, en Lima, el próximo día 1 de julio del presente año.

(BT: 우선 금년 7월 1일 리마에서 **한국의 해외농업협력센터인 KOPIA**가 개관할 예정입니다.)

예시 5) T2

ST: 저는 어제, 조금 전에 산토스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한국상품전시회**에 갔습니다.

TT: Como lo dijo el Sr. Presidente, Santos, ayer acudí al **Expo Corea 2012**.

(BT: 산토스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저는 **2021 한국 엑스포**에 갔습니다.)

예시 4와 5는 모두 원문에서 제시된 고유명사를 도착어에서 정확한 표현으로 바꾸어 통역한 사례이다. 예시 4의 ‘농업기술협력센터’는 앞에 ‘한국과 페루의’라는 수식어가 있어 양국이 공동으로 설치한 센터라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이 센터는 한국의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해외농업기술개발 사업(KOPIA)의 일환으로 페루에 사무소 개소를 추진 중이었다. 따라서 예시 4의 TT와 같이 ‘한국의 해외농업협력 KOPIA 센터’로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 예시 5의 경우도 원문을 그대로 풀어서 옮길 수 있겠지만 정확성을 위해 스페인어로 공식명칭을 사용하여 통역한 예이다.

예시 6) T3

ST: 작년 9월 산토스 대통령께서 한국을 **방문**했을 때

TT: Durante la **visita de Estado** a Corea del Sr. Presidente, Santos

(BT: 산토스 대통령의 한국 **국빈방문** 때)

예시 7) T5

ST: Quiero también destacar, Sr. Primer Ministro, la importancia que tiene la vinculación de Corea a la Alianza del Pacífico.

(BT: 저는 **한국의 태평양 동맹 가입**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TT: 저희 콜롬비아 정부는 **대한민국의 태평양 동맹 준회원국 가입**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지를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지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시 6과 7은 고유명사는 아니나 연사가 지시하는 대상이 통역사의 중재를 통해 명확해진 예이다. 예시 6에서는 ST의 ‘방문’이 TT에서 ‘국빈방문’으로, 예시 7에서는 ‘한국의 태평양 동맹 가입’이 ‘대한민국의 태평양 동맹 준회원국 가입’으로 통역되어 연사가 의도한 바가 명확하게 전달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태평양 동맹 가입의 경우 ‘준회원국’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한국측에는 중요한 정보인데, 이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는 통역사가 해당 정보를 첨가함으로써 중재한 사례이다.

4.3 격식성 높이기

격식성을 높이는 전략은 총 20건으로 배경 지식을 활용한 전략인 내용보강과 명사화 다음으로 가장 빈도수가 높았다(34.5%). 격식성 높이는 주로 관형어 등의 수식어를 첨가하는 식으로 나타났는데, 그 결과 연사의 발언의 격이 높아지거나 메시지가 더욱 강조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예시 8) T3

ST: **한국 대통령**으로서 **처음 방문하는 게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일행 전체를 산토스 대통령과 정부에서, **열렬하게 환영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TT: Antes que nada, quisiera expresarle mi más profundo agradecimiento por la calurosa acogida a mí y a la delegación que me acompaña. **Me siento muy honrado y complacido al dirigirme a ustedes en esta visita de Estado a la República de Colombia, la primera de un jefe de Estado de la República de Corea.**

(BT: 먼저 저와 제 대표단을 열렬히 환영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

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콜롬비아를 방문해 여러분들을 만나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시 8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콜롬비아를 방문하여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의 서두발언이다. 첫 문장에서 이 전 대통령은 특별한 수식어 없이 ‘한국 대통령의 콜롬비아 최초 방문’이라는 사실만 나열하고 있다. 통역사는 이 발언에 ‘영광스럽고 기쁘다’는 수식어를 첨가했을 뿐만 아니라, ST의 두 문장 순서를 바꾸어 통역하였다. ST를 그대로 옮겼다면 문장 간 연결이 부자연스럽고 메시지 자체도 건조하게 전달됐을 것이다. 물론 예시 8의 ST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제 첫 콜롬비아 방문에 우리 일행 전체를 열렬히 환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로 통역했다면 더 간결했을 것이다. 그러나 스페인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한국 대통령의 콜롬비아 최초 방문’을 문장 끝부분에 부사구로 미쳐 연결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TT는 통역사가 그 대안으로서 국가원수의 외국 방문 시기쁨을 나타낼 때 스페인어 외교 연설문에서 주로 사용하는 표현을 차용한 결과로 보인다.

예시 9) T2

ST: 많은 생명의 희생

TT: su noble sacrificio

(BT: 그들의 고귀한 희생)

예시 10) T2

ST: 오늘 이 자리에는 참전했던 알바로 발렌시아 노병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TT: Hoy contamos con la valiosa presencia del Sr. Exgeneral Álvaro Valencia.

(BT: 오늘 알바로 발렌시아 노병께서 귀한 시간을 내어 주셨습니다.)

예시 9와 10은 관형어를 첨가하여 격식을 높인 예이다. 예시 9는 ST의 ‘희생’에 ‘고귀한’을 덧붙여 통역하여 그 의미를 강조하였다. 마찬가지로 예시 10도 배석자의 참석을 평가하는 공손법으로서 ‘귀중한’이라는 관형어를 첨가하는 전략이 관찰되었다.

예시 11) T4

ST: 콜롬비아는 **6.25 참전**으로 인해 한국민에게는 친숙한 우방국입니다.

TT: Colombia constituye sin duda alguna un país muy familiar para los ciudadanos coreanos por su **generosa participación en la Guerra de Corea.**

(BT: **한국전에 기꺼이 참전한** 콜롬비아는 의심의 여지 없이 한국민에게 매우 친숙한 국가입니다.)

예시 11의 통역사는 ST ‘6.25 참전’에 ‘관대한(generosa)’이라는 형용사와 문장의 주동사 뒤에 ‘의심의 여지 없이(sin duda alguna)’라는 부사까지 첨가하여 격식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스페인어 연결에서 자주 관찰되는 수사적 효과도 강화하였다.

예시 12) T1

ST: (지금 여러 가지 방위산업 분야에서 협력사업이 논의되고 있는데,) 군사적인 사안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TT: **le solicito que me comprendan que no puedo exponer todos los detalles** de la cooperación en materia de defensa,

(BT: 방위 분야 협력에 대한 **모든 세부사항을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이해해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예시 12는 김성환 전 외교부 장관의 페루 방문 당시 기자회견에서 방위산업 협력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한 김 전 장관의 답변이다. 예시 12에서 보듯이 연사는 답변을 회피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으로 발언을 시작한다. 이때 통역사는 원문에 없는 ‘이해해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라는 문장을 덧붙여 격식성과 공손함을 강화하였다. 구체적인 답변이 제공되지 않은 점에 대해 혹시나 해당 기자가 언짢게 여겨 양국 관계에 불리한 기사가 나오는 것을 방지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는 원발화자의 직접적인 거부의 표현이 무례하게 보이지 않도록 통역사가 간접적이고 긴 문장으로 바꿔 말할 수 있다는 카드릭 외(2021: 132)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다.

4.4 중립성 유지

회담 도중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주제가 제기될 경우 이후 행사 분위기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간혹 상대측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을 때 연사가 정제되지 않은 언어로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다. 순간의 감정에 기대 이루어진 발언을 여과 없이 통역했을 때 자칫 분위기가 냉각될 수 있으니 유념할 필요가 있다.

예시 13) T5

ST: 콜롬비아 측은 아보카도를 포함한 일부 농산물에 대한 한국측의 검역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TT: También hemos tomado nota sobre los estrictos controles sanitarios y fitosanitarios que se están implementando por parte de las autoridades coreanas a los productos agrícolas colombianos como avocado.

(BT: 또한 우리는 아보카도 등의 콜롬비아 농산품에 대한 한국 당국의 엄격한 검역에 대해 새겨들었습니다.)

예시 13에서 연사는 감정적이지 않고 정제된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향후 양자협력 분야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한국 정부를 대표해 콜롬비아 대통령의 방한을 거듭 초청하는 전후 맥락을 고려하면 ST의 ‘지나치게’, ‘까다로운’, ‘문제제기’와 같은 표현은 스페인어로 그대로 옮기면 다소 강한 어조로 들려 담화의 흐름과 배치되는 인상을 준다. 이에 통역사는 ‘지나치게’는 생략하고, ‘까다로운’은 ‘엄격한’으로, ‘문제제기’는 ‘새겨들다¹¹⁾’ 정도의 표현으로 어조를 약화시킴으로써 해당 사안에 대해 한국측이 콜롬비아의 문제제기를 언짢게 여긴다는 잘못된 인상을 주지 않는 전략을 택하였다. 정치외교 분야에서도 상황에 따라서는 강한 어조라 할지라도 원발화를 있는 그대로 옮겨야 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시 13과 같이 우호증진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담화의 경우 통역사가 발언의 수위를 조절하는 중재 역할을 해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11) 예시 13의 TT에서 사용한 표현인 ‘tomar nota’는 직역하면 ‘메모를 하다’로 보통 상대방의 의견을 잘 청취했다는 화답의 표현으로 사용된다.

4.5 논문

모든 연사가 달변가는 아니다. 또 동시에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면 세부적인 사항은 놓칠 수도 있다. 심지어 특정 통역사와 오래 호흡을 맞춘 사이라면 통역사가 알아서 정리해주길 기대하며 문장을 온전히 끝내지 않는 경우도 있고, 비문이 많거나 중언부언하는 연사도 있다. 이때 통역사가 그러한 문장을 다듬지 않은 채 통역한다면 논리적이지 않은 메시지의 책임이 연사인지, 통역사인 지 불분명해진다. 만일 청중이 전자의 경우로 받아들인다면 해당 인사의 격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예시 14) T3

ST: 그래서 양국은 여러 측면에서 남미의, **우리 한국은 남미의 관문으로 콜롬비아를** 앞으로 대할 것이고 또 **콜롬비아는 아시아의 관문으로 한국과의 한국을** 하겠다는, 그런 양국과의 굳건한 관계로 발전하기를 서로 합의하였습니다.

TT: Espero que tomándolo como base ambas naciones puedan servir de una puerta de entrada, por ejemplo Corea como puerta de entrada para Colombia para lanzarse a los demás mercados asiáticos, y también Colombia como una plataforma para que Corea pueda trabajar en otros países latinoamericanos.

(BT: 저는 이를 바탕으로 양국이 서로를 관문으로 삼길 바랍니다. 한국은 콜롬비아의 아시아 시장 진출의 관문으로, 콜롬비아는 한국의 중남미 진출 관문이 되길 바랍니다.)

예시 14의 ST는 다소 매끄럽지 않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관문’이 의미하는 바도 유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명확하지 않다. 통역사는 문장을 다듬고 원문에 부족한 요소를 보충하여 연사의 의도대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한 것을 알 수 있다.

예시 15) T4

ST: Yo personalmente tuve el honor de visitar Corea en 2011 ya estamos cosechando los frutos de esta visita

(BT: 저는 개인적으로 2011년에 한국을 방문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

제 우리는 제 방한의 결실을 거두고 있습니다.)

TT: 저는 개인적으로 2011년에 콜롬비아 대통령으로서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방문을 통해서 양국 간에 협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고** 현재 그러한 성과들을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시 15는 원문에 부족한 논리관계를 통역사가 보충한 사례이다. 예시 15에서 산토스 대통령은 자신의 방한을 언급하며 이어서 현재 양국 관계가 결실을 보고 있다고 발언을 마무리한다. 통역사는 산토스 대통령의 방한과 현재의 성과를 논리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그 영광스러운 방문을 통해서 양국 간에 협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고’라는 문장을 삽입하여 메시지의 완결성을 높였다.

예시 16) T5

ST: 첫째는 우리 두 나라는 피로 맺어진 형제 같은 국가여서 다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돈독한 우정과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 만났지만 십년지기 같은 기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TT: Esto se debe en primer lugar, porque nuestros países estamos unidos por la sangre. Esto no se puede comparar con nadie en el mundo. Estamos en base de una amistad y una confianza muy sólida.

(BT: 이는 우선 우리 두 나라가 피로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계 다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우 돈독한 우정과 신뢰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Ø)

예시 16의 ST 마지막 문장 ‘처음 만났지만 십년지기 같은 기분을 갖게 되었습니다’는 TT에서 누락되어 있다. 이는 앞서 연사가 ‘우리 두 사람은 오늘 처음 만났지만 마치 십 년 넘은 친구처럼 모든 얘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라는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불필요하게 반복된 발언을 똑같이 통역해서 발언의 길이를 늘이고 행사시간을 지연시키지 않는 것도 통역사의 중재 역할의 하나라 할 수 있겠다.

5. 결론

본고에서는 정치외교 통역사가 의사소통 상황의 참여자로서 중재 역할을 수행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실제 정치외교 상황에서 통역이 제공된 현장 영상을 입수하여 분석하였다. 총 5건의 영상을 분석한 결과 통역사의 중재가 명시화, 내용보강, 격식성 높이기, 중립성 유지, 운문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명시화와 내용보강은 통역에서 주로 관찰되는 전략이나, 다양한 주제에 대한 배경 지식이 요구되는 정치외교 통역에서도 이러한 전략이 유효함을 재확인하였다. 정치외교 분야의 텍스트가 특징적으로 가지는 격식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통역사의 중재 전략도 관찰되었다. 이는 주로 수식어를 첨가하는 방식으로 발현되었는데, 그 결과 연사의 격을 높이는 동시에 연설의 수사적 효과도 향상되었다. 이외에도 통역사는 민감한 주제가 제기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통역해야 할 때도 발언의 수위를 조절하는 등의 중재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문법적으로 완전하지 않거나 논리관계가 부족한 발언도 매끄럽게 정리하고 행간에 숨은 연사의 의도까지 파악하여 전달하는 것이 통역사의 몫이 되는 사례도 있었다. 다른 분야의 통역사도 유사한 역할이 기대되나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정치외교 분야는 통역사의 중재가 더욱 중요하다. 통역사의 역할에 따라 고위 인사의 이미지, 국격, 신뢰도, 심지어 양국 관계의 깊이까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그동안 연구가 부진한 정치외교 통역과 통역사의 역할을 조명한 것에서 본 연구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본고에서 분석한 예시가 절대적인 기준이나 해답이 될 수는 없으나 검증된 정치외교 통역사의 실제 통역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통역 학습자에게 일종의 가이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만 정치외교 통역의 특성상 자료수집이 용이하지 않아 분석한 데이터가 대부분 한 국가에 편중되어 있고 통역 상황 역시 공동언론발표로 한정된 부분은 아쉽다. 향후 현업에 있는 정치외교 통역사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나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면 통역사의 중재 과정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영민 (2005) 「대화통역사의 중재자적 기능」, 『통역과 번역』 7(1): 3-17.
- 김영신 (2003) 「Translator's Mediation in Ideological Issues: A Critical Approach to 'News' Translation」, 『번역학연구』 4(2): 175-190.
- 김영주 (2013) 「스페인어권 대통령 취임사의 문체 분석」, 『수사학』 18: 87-113.
- 김영주 (2020) 「대통령 연설문 한서 기계번역의 언어간섭 양상 분석-인간번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1(4): 9-38.
- 김지은 (2015) 「커뮤니티 통역사의 역할에 관한 논의」, 『통역과 번역』 17(1): 89-124.
- 박소영 (2015) 「서한 외교 연설문 번역 교육에 관한 연구」, 『스페인어문학』 75: 55-76.
- 송연석 (2019) 「생방송 동시통역의 격식성 전략: 트럼프 대통령 북미정상회담 기자회견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3(2): 117-137.
- 이승재 (2010) 「관광통역사와 중재적 역할: 공공가이드를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2(2): 123-147.
- 이유진 (2016) 「한국 법정통역인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연구」, 『통역과 번역』 18: 111-135.
- 이혜승 (2006) 「정치텍스트의 특성과 통역교육: 비유적 표현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8(2): 121-139.
- 한원덕 (2002) 「스페인어-한국어 통역의 기능어교육 연구」, 『통번역학 연구』 6: 177-193.
- 황지연 (2003) 「정치외교분야의 한→중 통역」, 『중국학연구』 26: 439-460.
- Bedeke, Laetitia and Feinauer Ilse (2006) 'The Translator as Cultural Mediator', *Southern African Linguistics and Applied Language Studies* 24(2): 133-141.
- Kadrić, Mira, Sylvi Rennert and Christina Schäffner (2021) *Diplomatic and Political Interpreting Explained*, London & New York: Routledge.
- Hatim, Basil and Ian Mason (1990) *Discourse and the Translator*, Essex: Longman.

- Hatim, Basil and Ian Mason (1997) *The Translator as Communicator*, London & New York: Routledge.
- Liao, Sixin and Pan Li (2018) 'Interpreter Mediation at Political Press Conferences: a Narrative Account', *Interpreting* 20(2): 188-203.
- Ménacère, Karim (1999) 'Linguistic Acrobatics: Translating a Web of Cultural Connections', *Babel* 45(4): 345-354.
- Shäffner, Christina (1997) 'Strategies of Translating Political Texts', in Anna Trosborg (ed.) *Text Typology and Translation*,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119-43.

<인터넷 자료>

- 차예지 (2007. 1. 27) 「통역사와 수표는 가짜일 때만 알려진다」, 『오마이뉴스』, 2021년 8월 30일 검색.
- Buri, María R. (2015) 'Interpreting in Diplomatic Settings', aiic.net, 29 October. Available at https://aiic.org/document/963/AIICWebzine_2015_Issue67_9_BURI_Interpreting_in_diplomatic_settings_EN.pdf.

<데이터 출처>

- T1: www.youtube.com/watch?v=jg_sBytKCZ8
- T2: www.youtube.com/watch?v=H1LJJ45jF3w
- T3: www.youtube.com/watch?v=6-H1Z1J_q4M&t=763s
- T4: www.youtube.com/watch?v=d6Aa7Xju1Nc&t=1514s
- T5: www.youtube.com/watch?v=GG7BnrtVkKY&t=1014s

[Abstract]

A Study on Interpreter's Role as Mediator in Political and Diplomatic Settings

Kim, Youngjoo
(Duksung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mediating role of interpreters in political and diplomatic settings. For this purpose, videos, where both original speeches and their consecutive translations either in Korean or in Spanish were recorded,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he analysis reveals that interpreters resort to various strategies such as explication, reinforcement, high degree of formality, neutrality, and polishing, which demonstrate clearly that interpreters mediate the communication and try to fully deliver a speaker's message in the target language. The study concludes that the interpreters' mediation in political and diplomatic discourse is evident and important as it can affect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he speaker's reputation as a high-level officer.

▶ Key Words: political and diplomatic interpreting, interpreter's role, mediation, background knowledge, interpreting strategies

▶ 주제어: 정치외교 통역, 통역사 역할, 중재, 배경지식, 통역전략

김영주

덕성여자대학교 스페인어과 강사

celestekim00@gmail.com

관심분야: 정치외교통역, 통역전략, 통역교육

논문투고일: 2021년 9월 5일

심사완료일: 2021년 9월 28일

게재확정일: 2021년 10월 7일